

# 알버타 코로나19 확진자 줄지 않자 주지사 세컨드 섯다운도 신중히 검토

알버타주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명을 넘어서면서 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치지 못하고 있다. 28일 하루에만 133명의 확진자와 3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Alberta Health Services에 따르면 현재 Calgary 구역 713 명을 포함하여 1,430 개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따라 캐니주지사가 한 인터뷰에서 두번째 경제 봉쇄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나 9월학교 개학을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

고 캘거리공항도 여행자들에게 발열 체크를 시작했다. 체스터 미어시의 경우 비거주자에게 수변을 이용할 때 사용료를 청구하고 나섰다. 성인 요금은 하루 15 달러, 3세에서 14 세까지의 청소년은 5 달러이고 가족 이용료는 \$ 40이다.

캘거리 109-5222 130 Ave. SE 소재한 맥다날드에서는 종업원 가운데 양성반응자가 나온 뒤 위생 점검을 위해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다. 에드먼턴과 밴프 레스브리지도 캘거리에 이어 8 월

1일부터 실내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를 의무화했다. 에어 드리와 코크레인은 의무 마스크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확진자 추이를 더 지켜보기로 했다.

알버타와는 대조적으로 토론토에서는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최근 며칠 동안 1 자리수의 확진자 수를 보인 토론토는 28일 추가된 확진자는 단 1명으로 확인됐다. 토론토에 코로나 펜데믹이 조치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 캐나다 '렘데시비르' 사용 마침내 허가

연방 보건부, '코로나 19 치료제 국내 도입' '코로나19 회복 기간 단축 효과' ... '중증환자 대상'

코로나19의 유력한 치료제로 거론되는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Remdesivir)'가 마침내 국내에 도입된다.

캐나다 보건당국은 28일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개발한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공식 치료제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렘데시비르'는 당초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를 돕기 위해 개발되었던 항바이러스제로, 지난 5월 미국의 코로나19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입증된 이후 각국에 차례 수출되고 있다. 이 치료제는 체내에 침투

한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 복제를 막아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증상의 지속 기간을 단축하는 데 뚜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당국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은 건 '렘데시비르'가 최초다.

이 치료제는 이미 미국, 유럽, 일본, 싱가포르, 호주에서 긴급 승인 또는 조건부 허가를 받아 공급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지난 24일 정식 수입 및 판매가 허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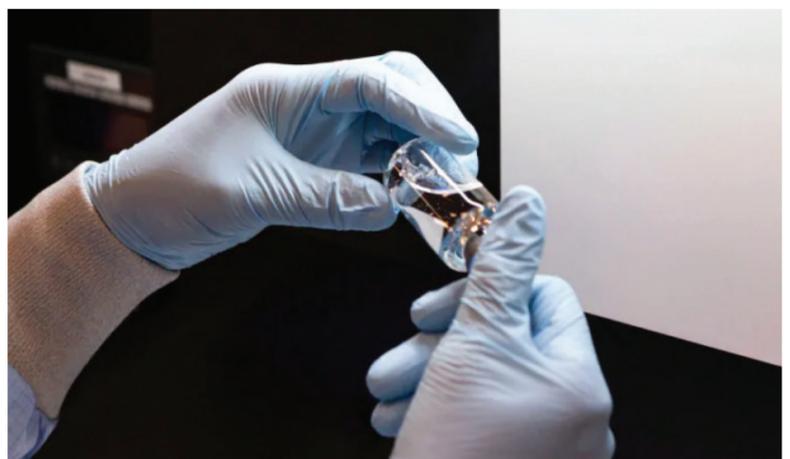
해외 각국이 일찍이 치료제 시장에 뛰어들던 점을 고려하면 캐나다의 '렘데시비르' 도입은 다소 뒤늦은 행보다.

다만 보건당국은 지난 6주간 '렘데시비르'의 안전성과 효능성에 대한 검토를 완료했으며, 길리어드 사이언스 캐나다 지사에서 '렘데시비르'에 대한 최종 임상 보고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당국에 따르면 '렘데시비르'는 폐렴 등을 앓는 중증 환자에게 우선 투약된다. 즉, 환자들의 면밀한 감시가 가능한 의료 시설에서만 치료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당국은 특히 심각한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확진자 가운데 적어도 40킬로그램의 체중을 가진 12세 이상의 환자에게만 약물을 투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렘데시비르'의 안전성을 계속해서 면밀히 감시



할 예정이며,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당국은 성명에서 '렘데시비르'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 역시 신속하고 공평하게 확보하기 위해 길리어드 사이언스 캐나다 지사와 계속해서 협력할 예정"이라

며 "이에 대한 안전성이 명확히 확보되는 대로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5월 미국 국립보건원이 발표한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기간을 30% 단축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약을 복용한 환자들의

회복기간이 15일에서 11일로 4일 가량 줄어드는 효과를 보이는 셈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렘데시비르가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효과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세금 미납자 9월 말까진 내야" 국세청 납부 마감일 1개월 연장



지난해분 소득에 대한 세금납부 마감일이 1개월 연장됐다.

국세청은 당초 9월1일까지였던 세금납부 마감일을 9월30일로 늦추기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9월30일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 미납자들은 육아수당 등 복지혜택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세금신고 시즌 때 납세자

들은 환급을 받거나 국세청에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다. 추가로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는 전년도에 낸 세금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급 받는 납세자의 세금 신고 마감일은 지난 6월1일이였다.

## 5월 누계 한인 이민자 1,485명 작년 동기 대비 33.1% 감소

코로나19로 인해 제대로 영주권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캐나다 전체로나 한인이나 새 영주권수가 작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연방이민성의 5월까지 새 영주권자 통계를 보면 캐나다 전체로 총 8만 4275명이 영주권자가 됐다. 작년 5월 누계 12만 5870명에 비해 4만 1595명, 즉 33%나 급감한 수이다.

한국 국적자도 5월 누계로 1485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33.1%가 감소했다.

올해 월별 한국 국적자의 영주권 취득자 수는 1월 500명에 이어 2월 390명으로 그리고 코로나19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3월 260명으로 감소했다. 이어 4월에는 70명으로 급감했다가 5월에 다시 265명으로

늘었다. 캐나다 전체적으로도 1월 2만 4700명, 2월 2만 5895명에서 코로나19가 본격화된 3월 1만 8595명, 4월에는 4130명으로 줄었다가 5월에 1만 955명으로 다소 회복했다.

5월 누계로 영주권 유입 상위 국가 순위를 보면 인도가 1만 9865명으로 1위를, 이어 중국이 8145명으로 2위, 필리핀이 6035명으로 3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영국과 영국령에 이어 12위를 차지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4월과 5월 새 시민권자가 거의 나오지 않으면서 한인 새 시민권자 수도 작년 동기 대비 크게 줄어들었다. 연방이민성의 5월누계 전

체 새 시민권자는 6만 1008명이였다. 1월 2만 4788명, 2월 2만 6720명이던 새 시민권자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며 9438명으로 이어 4월에 2명, 5월에 53명으로 급감했다.

작년 5월 누계로 10만 6912명에 비해 4만 5904명이 줄어들었다. 즉 42.9%가 줄어든 셈이다.

한인 새 시민권자는 작년 동기대비 908명이 줄어든 696명으로 56.6%나 급감했다. 이는 캐나다 전체 감소율보다 13.6%포인트나 많은 셈이다. 북한 국적자도 두명 있었다.

한인 새 시민권자는 1월 294명, 2월 289명을 보이다 3월 113명으로 줄고 4월과 5월에는 단 한 명의 시민권자도 나오지 않았다.

**YOU & EYE OPTICAL** Dr. Martin Kwon  
**권혁진 안과 가정의**  
 한국어 및 영어 안과진료  
 눈병 및 응급진료 Walk-In  
 눈 정기건강검진 및 시력검사 예약  
 콘택트렌즈, 안경 및 선글래스 문의  
 2984 Ellwood Drive SW Edmonton (780) 440-2239

**기경락 마사지**  
**Young Kim**  
 RMT, Doctor of TCM  
 모든 의료보험 사용가능  
**추나요법 20년 경력**  
 예약 : 4038702776  
 72 Arbour Crest Dr. NW Calgary

**STAMPEDE 한인약국**  
 월~금: 9-6  
 토: 10-3  
 일: 예약가능  
**약사 임채현 (Terrie)**  
**403.460.4646**  
 19,3616-52 Ave NW  
 (코리아나마켓 옆)

**알버타 인술 39년**  
**Dr. Wan Mo Chung**  
 Pleasantview Professional Building  
 #304, 11044-51 Avenue, Edmonton  
 TEL: (780) 434-1143  
**정완모 데디칼 센터**

**Koryo Optical**  
**고려프라자 안경원**  
 "눈의 소중한 & 패션의 완성"  
 패키지 \$145 | 어택이 패키지 \$125  
 403-228-6878  
 1324 10 Avenue SW, Calgary

**ACUSPORTS**  
 PAIN-REHABILITATION-CLINIC  
 "YOUR PAIN STOPS HERE"  
**아쿠스스포츠**  
 원장 김보목  
 • 침술요법  
 • 카이로프랙틱  
 • 마사지테라피  
**통증 재활 클리닉**  
 www.acusports.ca  
 acusports165@gmail.com